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범죄한 연고로, 이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사람과 함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 받은 성도는 영혼은 거듭났지만, 아직까지 연약한 육신을 입은 채로 이 세상에 거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이 세상 자체도 저주받은 상태라는 사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마라의 쓴 물과 같은 저주 가운데에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가 고통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물에 던져졌더니 쓴 물이 단 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고통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셨는데, 그 은혜가 성도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면, 모든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오아시스인 엘림은, 영적으로는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행동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적용한 이후에, 비로소 엘림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세상에서 무조건 형통한 삶을 살게 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의 영혼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그것을 삶에 적용함으로써 영혼이 잘 되게 하신 후에, 비로소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삼 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고 했습니다. 우리는 성도에게 있어서 영혼의 형통이 먼저이고, 그 후에 영혼이 잘 된 상태에 버금가도록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저주의 쇠사슬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마라에 직면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우리는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원망하거나 불평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모든 제물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뒤덮고, 보혈로써 저주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를 엘림에 이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가족분들은 마라의 쓴 물과도 같은 현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혈 안에 있습니다 / 모든 저주는 / 예수님의 보혈로 / 끊어질 지어다 / 사라질지어다 / 저주가 변하여 / 축복이 될지어다 / 아멘”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저주의 제물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하십시오. 마라의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영혼이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됨과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모든 가족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 추석 가정예배

2023. 9. 28 ~ 30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 133:1)



## 추석 가정예배 순서

**입례** ..... **사회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이**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찬송** ..... (91장/새 91장) ..... **다 같이**

**대표기도** ..... **말은이**  
 (가족 중 한 명이 담당하고, 마땅치 않으면 사회자가 담당)

**성경봉독** ..... (요한삼서 1장 2절) ..... **다 같이**

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설교** ..... **영혼이 잘 됨 같이** ..... **사회자**

**찬송** ..... (190장/새 258장) ..... **다 같이**

**기도** ..... **다 같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후, 사회자의 기도로 마무리)

**주기도문** .....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 설교 - “영혼이 잘 됨 같이”

온 가족이 모여서 추석 가정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거룩한 계획을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정을 시작하지 사흘이 되도록 물을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할 때에 가져왔던 물도 모두 바닥이 나버려서, 백성들은 극심한 갈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때 구름 기둥이 진행을 멈추고 마라에 머물렀습니다. 백성들은 마라에서 한 샘을 발견했습니다. 백성들은 물을 마실 기대감을 갖고 샘으로 달려갔는데, 먼저 물을 마신 이들이 마신 물을 모두 토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석회질이 다량 녹아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은 크게 실망하여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는, 그것을 물에 던져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그 나무를 물에 던졌더니, 즉시로 물이 달아지게 되어 백성들과 가축들은 갈증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 후에, 백성들은 약 10km를 더 진행하여 엘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엘림은 커다란 오아시스로서, 12개의 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곳 엘림에서 물을 풍족하게 마실 수 있었고, 이후의 여정을 위해서 물을 많이 비축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달콤한 종려열매를 먹으면서, 기력을 회복하고 이후의 여정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아서 진행한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구원 받은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처인 엘림에 도착하기에 앞서, 마라에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마라와 엘림은 약 10km 가량 떨어져 있는데, 이 정도 거리라면 마라에서 굳이 쉬지 않더라도, 조금만 더 전진하면 얼마든지 당일에 엘림까지 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들르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마라의 쓴 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나무를 물에 던져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선택한 나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무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박고 있으면 그것을 물에 던져 넣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나무의 밑동을 도끼로 쳐서 나무를 찍어냈던 것입니다. 즉 이 나무는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한 나무가 샘에 던져지자 쓰디쓴 물이 단 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마라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것은, 사람의 인생이 저주로 점철되어 있음